

## 제5강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것 I

(1교시)

### ▲ 버추얼리즘에 대비되는 근대적 정치경제의 현상

도입: 버추얼리즘에 대한 정리

- 현실적인 것을 조건짓고 있는 문제들(문제와 그 문제의 조건들의 총체)을 발견하고 그것을 미분하기. 새로운 요소와 새로운 비율관계의 창출.

※ Virtual(잠재적인 것) ↔ Actual(현실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 버추얼의 어떤 성격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삶 정치학을 창안해 낼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치경제 구조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전통 유물론에서는 Actual에 기반하여 사유했음. Virtual에 입각한 사유를 하지 못함.

### ▲ 국가정치와 경제구조를 통해 본 근대의 성격

근대적 의미의 국가(17-18C)

- 현실적인 것에 기반을 둠
- 삼권분립(입법, 사법, 행정)에 기초함.
- 자본주의 질서에 기초한 민족국가의 형태를 띠.
- 이 가운데 입법의 과정이 근대적 국가의 근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척도가 됨.
- 자본주의와 근대민족국가는 동시적으로 발전함.
- 부르주아들이 이러한 근대민족국가 형성에 핵심적 지위를 가짐.
- 부르주아들은 권력의 독점을 위한 집권에 천착함. (이 부분에서는 좌파들도 차이가 없음)
- 19C 좌파운동은 Actual한 권력을 차지하는 데 전력을 기울임. 이와 더불어 20C의 좌파들 역시 권력의 독점을 위한 중앙집권을 위해 '당'을 구성, 이를 중심으로 활동하기 시작함. 즉, 좌파와 우파 모두 국가권력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점은 공통점이라 할 수 있음.

국가의 성격: 대의제의 모습을 갖추. 개인이 선거를 통해 대표들에게 권력을 양도함.

→ 대의제의 모습을 갖춘 국가로 인해 국민정치는 간접정치의 형식으로 자리를 잡게 됨. 이는 곧 부르주아 사회의 정치형태가 가지는 특성이 바로 이러한 간접성.

경제적 측면 - 근대사회에서 가치는 값과 동의어가 됨. 가치, 즉 값은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됨(아담 스미스와 리카도는 물론이고 맑스 역시 이에 동의함). 이는 가치가 교환의 척도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함. 자본가는 노동자들의 잉여노동을 통해 잉여가치를 획득하여 이윤을 창출함. 이에 노동자는 생산수단에 철저히 분리됨. 가치는 소수의 자본가들에 의해 독점되었음.

→ ‘가치의 독점’이 19C-20C의 특징적인 형태. 소련 공산주의도 다를 바 없음. 이러한 국가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국가가 모든 가치를 독점함.

(2교시)

**권력 ↔ 자본:** 이것이 우리 삶을 규정하는 모든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하다. 이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좌파 정치에서 이 견해를 얼마나 넘어섰는가?

#### ▲ 좌파 정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부르주아들이 쥐고 있는 권력을 장악하여 생산수단을 프롤레타리아트들이 소유해야 한다는 의식이 지배적 (1900년대 스탈린주의 정치에 의해 공고해진 생각) “당”을 통해 노동계급을 지휘하기 시작함. 이러한 의식과 행태는 기존 부르주아 정치의 관점과 다를 바 없음. 누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됨.



스탈린(1879-1953) - 국가 사회주의의 선두주자. 그는 반대자들을 과감하게 숙청함으로써 국가 사회주의의 한계를 스스로 보여주었다.

#### ▲ ‘계급 정당 → 사회주의 사회 실현’이란 도식의 탄생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해방을 일궈내지 못했음. 결국 국가 사회주의에 바탕을 둔 소련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더불어서 함께 몰락함. 몰락하기 이전부터 많은 내부적 갈등을 안고 있었음. 민중들의 봉기도 여러 차례 일어남. ex) 천안문 사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사유가 필요한가?

- 살 개념의 도입이 필요함: 정치적으로 도입된 적은 거의 없었음.

이를 새롭게 정치적으로 도입한 인물이 바로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

**“다중은 살이다!!”**

- ※ 질 들뢰즈는 이를 미학이론에서 도입. 이에 대한 주저는 「감각의 논리」
- ※ 메를로-퐁티의 살의 존재론 -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구체화.  
→ 들뢰즈, 네그리&하트도 메를로-퐁티에게서 영감을 얻었음

- 여기서 살이란? 보는 사람의 눈과 보여지는 것 사이의 두께를 일컬음. 이는 곧 Virtual(잠재적인 것)에 해당함.

- ※ 프롤레타리아트와 살의 개념을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 - 직접적인 것의 도출이 여기서 가능함.